

수없이 쏟아져나오는 의식들에 끄달리지 마세요

21면에서 계속

한 데로 고이고, 내가 아내와 부부 사이를 맺었어도 무슨 말든지 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데서 부부가 따뜻해지지 '어휴, 저거 또 뭐라고 그렇게 봐...' 하고 하지 못할 말이 있으면 벌써 그건 참다운 부부가 못 돼.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어떠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집승 하나를 내가 건진다.' 이럴 때도 내가 그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이 돼 줘야 그걸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달아나가지 않습니다. 소 속에는 소가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뺨 속에 뺨이 돼서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 속에 내가 돈이 돼서 들어간다면 돈하고 얼마나 같이 합쳐졌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돈도 될 수 있고 뭐, 모두 다, 물도 될 수 있고 흙도 될 수 있고 미생들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도 나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도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이 소입니다. 전부 나이기 때문이죠.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있어요. 그런데 아, 고개가 이제 돌아가지 않으니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프고.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돌린 채 어떤 남자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하는 거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고개는 이리하고 나한테 공손히 절을 삼 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참, 가만히 생각을 하니 '에이, 나같이 무지렁이 같고 모자라는 사람 앞에 저렇게 지극하게 남자가 절을 하니 세상에 저렇게...' 그렇게 참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이런 선 생각을 하곤 '고개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갔어요. 버스 안에서 버스를 타다가 누가 옆에서 탁 치니까 그냥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러는데 그냥 고개가 휘뺄 돌아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개가 마음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무슨 무얼 하고 자시고 이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고, 자비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지, 요새 사랑 사랑 하는데 나는 그 사랑이 너무 천해서 죽겠어요. 사랑을 한다 그래도, 사랑을 한다고 틀어 죽자사자하고도 다 돈 뺏어 가지고 도망 안 가나 사람 죽이고 가질 않나, 이런 판국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 아니게만 볼 수 있고 돌아 아닌 행을 그대로 한다면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뭐 나더 나더 할 거 없이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괴롭

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 병이 낫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날더러 이렇게 묻더군요. "스님은 왜 주머니에 들어갈 사이가 없이 돈을 누굴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아무리 그래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도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 마음 편안하자고 그러는 거지, 그게 나이기 때문이지."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보면 모두들 부자가 되기만을 고대를 하고 그러는데, 부자는 아, 우린 지금 철새처럼 이렇게 다녀도 부자예요. 나는 돈을 이렇게 누구한테 받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벌써 어디 가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주머니 털어 줘야 됩니다. 주고 다녀야지 이놈의 게 누가 주면 금방 나가고 주면 나가고 주면 나가고, 이러니까 들어오지 내가 주머니에 돈을 자주 쌓아 보세요. 그놈의 돈들이 그냥 도깨비가 돼 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그 도리만 알면 누구 마음에 돈

값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라는 거지, 여러분이 능력을 기르지 않고는 자식들도 뿌리가 깊게 박혀서 건전하고 건실하게 뿌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길러야 자식들에게도 능력의 그 빛이 거기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혈통이라는 것도, 핏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혈통과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닦으면 모든 혈통과 피 전체가 전부 바뀌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인연에 따라서 문쳐진 업이, 이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게, 악이고 선이고 그냥 좋은 거고 나쁜 거고 화내고 뭐 이런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전자의 과거에 살 때의 인연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고 건전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건전치 못하고 이리 왕 저리 왕 돈 한 푼이라도 생기면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서 방탕하고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거나 일가친척이 그렇게 되거나 해도 어떻게 속수무책이란 말이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지 것 한 번 낮게 해 주나마나지 그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그 도리를 알아서 해결을 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병원에 간다 해도 30%나 40%를 내가 병원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60% 70%는 반드시 여러분이, 자신이 그걸 총망해야 한다는 그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 갈 게 따로 있고 내가 해야 할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에게 기대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문 산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구하기 힘들고 애인은 떠나버리고 살맛이 안 납니다. 뭔가 제대로 되는 일은 없고 환만 나고 짜증만 납니다. 한 세상 즐겁게 살고 싶은데 스님,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문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몸을 받아 가지고 나올

서 그것이 자꾸자꾸 형성돼서 자꾸 그 마음이 나오니, 잠재의식 속에서 자꾸 현재의식으로 나오니 거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내려, 쉬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음과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핵과 에너지를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 그 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데 속지 마라 하신 뜻은 모든 거는 내가 지금 네 마음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납도 고정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 공했느니라. 전체 일체가 다 공했으니 거기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를 속지 말라. 모든 것을 합해서 개별적인 하나가 바로 주인공이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의 돌아감이 바로 주인공이더라. 공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 그 공한 데다가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그 자리에다가 바로 놓고, 맡겨 놓고 '당신밖에 나를 형성시킬 수 없었고, 당신밖에 나를 이익하게 이끌어 줄 수 없고, 당신밖에 내 병을 낫게 해 줄 수 없고, 당신밖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일면 속지 말고 거기에 나오는 거 모든 것을 거기에다 맡기고 살아라. 그런다면 일체 문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자, 문을 찾아 가지고 들어오려는 자는 보살 될 자격도 없거니와 불자 될 자격도 없느니라. 이 말이 틀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체가 없어서 벽도 없고 붓장도 없고 다 없습니다. 툭 터졌어요. 툭 터졌으니 거기에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그대로 여의함이요, 삼재가 드는 거 운명 짝자 이런 것도 다 없는 겁니다. 공했어. 어디 불을 자리가 없습니다. 병도 불을 자리가 없고 가난도 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한 생각이 그렇게 부족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그대로 여의하다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남의 말을 들으면 그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들으면 받아들여 모든 것을 돌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사랑을 할 수 있고 바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생기며 바로 천백억화신으로서 내 몸품이 인연으로 인해서 과거 생긴 그 악업, 선업의 생각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이 돼서 나고 들 때에 32상이 귀족하고 32승신이 다 모습을 화해서 바뀌 거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갖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여유를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오히려 감사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일체 문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자 문을 찾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보살 될 자격도 없거니와 불자 될 자격도 없느니라

주고 싶은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어 가지고는 주게 되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냥 엄청나게 생겨서 장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회사 잘되니 좋지, 나 돈 생각이 좋지, 가장 화목하니 좋지, 내 마음 편안하니 좋지,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서 이제 세상 살맛이 있는 거지요. 뭐 돈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다녀야 부자요? 나는 안 쌓아 가지고 다녀요. 왜? 전부 내 돈이니까. 아, 그런데 왜 그걸 무겁게 가지고 다니니까, 글썽? 그러니 그런 진정한 세상 맛을 알고 살고 싶으시다면 이 공부를 착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께 의지하고 싶어요

문 스님, 제 아들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저도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스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아플 때는 관하기도 하지만 너무 아플 때는 관도 안되고 스님 생각만 간절합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겠지요?

문 여러분은 지금 이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딱 거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이익을 보자는 거지, 여러분의 깨달음을 가져오라는 거고, 여러분의 몸을 보존하라는 거고 가정을 보전하고 이끌어가고, 위로는 부모님, 조상님의 목은 빛을 갖고, 은혜를

인연으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제재해 나가려면 내 마음이 나를 바로 이끌어 갈 수 있고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다스려 가면서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맡겨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업 선업을 다 지닌 인과로 문쳐진, 개수로 따질 수 없이 많은 그 의식들이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모습과 의식, 생명 그것들이 모두 내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간단한 예로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잘 걸지 못하다 이럴 때 '야, 너희들! 한마음 주인공의 심부름을 하는데 아니, 이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아주 진실하게 그렇게 하면 벌써 이 속에서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서 이 다리가 점차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리 뿐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도 안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기 안 와도 스님은 고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해도 만약에 한 번 그걸 고쳐 준다고 해서 그분이 다른 어떠한 난관이 닥쳐오는 걸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그렇게 나왔다 뿐이지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요다음에 누구가, 자신이 그렇게 되거나 부모가 그렇게 되거나 내 몸이 그렇게 되

때에 바로 이렇게 되지요. 정자, 난자는 바로 염마, 아버지를 비유한 겁니다. 그 염마 아버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영원한 자기의 불체가 거기 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합이 한데 결합이 될 때에 바로 어떠한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 바로 과거의 자기가 살던 그 의식과 핵이, 그 마음이 동시에 거기 결합이 돼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염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를 받아서 수십억 마리가 한데 모일 때에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딱 하나가 몸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염마 아빠의 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 없어진 그 자체가 왜 형성되는 그 몸에 옮겨? 그것이 바로 자기가 과거에 살 때에 인연으로 인해서 과거 문쳐진 이 몸품이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의 속상한 거, 가난이 오는 거 또 괴로움이 오는 거, 고통함이 오는 거, 허무감이 오는 거, 또 병이 생기고 서로가 부딪치고 아픔을 겪는 이 고통이 바로 그 인연으로 인해서 과거 된 그 자체 악업, 선업이 문쳐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거기에서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대로 잘나잘나에 돌아가면

신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candle.net

수공예 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토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밀납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 목조건물, 목조각품 (사찰의) 탕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받침)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받침)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 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리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한봉밀납** / 02)2004-8216

농협 053-01-208062 (우)한봉불교신문사